

착각(錯覺), 착시효과(錯視效果)라는 게 있습니다. 착시(錯視, optical illusion 또는 visual illusion)란, 시각 이미지가 실제 사물의 모습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시각정보의 왜곡, 고정관념, 시감각피로 등 여러 이유로, 뇌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바로 착시현상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착시현상’은 일상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거리를 건다가 함몰된 구덩이를 보고 피하려다 보니, 예술가가 평면거리에 그린 3차원 착시입체그림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건축물 같은 3차원 공간에 2차원 평면그림이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도 있습니다. 착시는 옷을 고를 때도 나타나는데, 옷의 가로세로 선 배열에 따라, 뚱뚱하고 마른체형으로 보이는 착시(錯視)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막에서 나타나는 신기루(mirage, 아지랑이; 망상, 덧없는 희망, 공중누각)도 일종의 착시현상입니다. 공기 중에서 빛이 굴절되어, 공중이나 땅 위에 실제로는 있지 않는 사물의 모습이 나타나 보이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빠져 쫓아가기 시작하면, 여행자는 결국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 오늘의 성경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야 그렇게 생각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분명 착각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유대인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똘똘 뭉쳐있는 종교민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도는 충격적인 고발(告發)을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 ‘선민의식’과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한 그들, 그러나 그들의 확신은, 헛된 감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유대인들은 어떤 허위감정에 빠진 것인가? (롬2:17-20)

17-18절에 보니, 이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call yourself a Jew)

그 특징들을 율법을 의지하며 (rely on the law), 하나님을 자랑하며 (brag about your relationship to God)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know his will)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자

(approve of what is superior)” 라는 4가지 자의식(自意識)과, 확신(確信)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유대인의 자화상(自畫像)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2차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유대인을 경멸하는 표로 그들의 가슴에 다윗의 별을 달았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우월감의 표시로 달았다고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보통은 이런 자부심(自負心)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 19-20절은 이들의 모습을 더 구체화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you are a guide for the blind),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a light for those who are in the dark)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an instructor of the foolish), 어린 아이의 선생(a teacher of infants)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대단한 확신입니다. 또 다른 4가지의 확신이 있는 셈입니다. a guide > a light > an instructor > a teacher. 이들은 자신들을 점점 절대화 우상화합니다. 자기들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독점의 논리를 펴니다.

‘자부심’도 좋고 ‘확신’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錯覺)이라면 문제가 큰 것입니다. 거짓된 구원의 확신, 허위감정(虛偽感情)으로 꾸며진 신앙인의 과박한 모습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악(惡)이 아니라 거악(巨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 유대인들은 왜 이런 잘못된 감정에 빠진 것인가요? (롬2:21-23)

사도는 유대인들이 가진 <자부심>과 <확신> 그 자체를 탓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부심과 확신에 <겉맞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21-23절에서 5가지 질문을 합니다.

- 1)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 2)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 3) 간음(姦淫)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姦淫)을 합니까?
- 4) 우상(偶像)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神殿)의 물건을 훔칩니까?
- 5)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辱)되게 합니까? (롬2:21-22)

다른 것을 이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이중 4번째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도둑질하지말라는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전(神殿)의 물건을 훔친다?. 신전엔 뭐가 있는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우상들을 가증히 여기는 저들이 그 물건들을 훔칩니까? 우상들은 은이나 금으로 부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끔 부정한 경찰이나 정부사람들이 수색을 하면서 값나가는 것을 In my pocket하여 슬쩍 도적질하는 영화를 봅니다.

여기의 참고구절은 신명기 7:25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울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불살라 없애야 하는데 불사르지 않고 슬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멸을 멸하시는 해를 명하셨는데 그것을 취하는 것이 도적질입니다.

여호수아서 7:21절에 보면 아간이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그 무게가 오십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진 것”처럼 훔치는 것입니다. 가진자 정권을 잡은자, 최상의 정보를 다루는 자들의 도둑질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이 다섯 가지 질문은 당대의 수사학적인 논법을 사용한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질문한 것입니다. 정직한 유대인이란 함구무언(緘口無言)일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5가지 질문 후에 23절로 결론을 붙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冒瀆)을 받는도다.”

사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주장만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는 외식(外飾)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매우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화있을진저”**라는 말을 쏘아 내셨습니다.

1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6. **화 있을진저**, 눈 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히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

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느도다. 눈 먼 비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걸도 깨끗하리라.

27.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비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 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9.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비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 7번 화있을지이다. 원어엔 14절도 포함해서 8번입니다(한글성경은 14절을 없으므로 기록).

화있을진저(Woe to you)의 히브리어 어원은 ouai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A primary exclamation of grief, 즉 ‘슬픔의 첫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들었을때 느끼는 첫 번 감정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화있을진저를 저주로만 보아선 안됩니다. alas 아! 슬프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결국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따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나 사도바울이 유대인과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대해 이런 강한 어조로 말하게 된 것인지요 이들은 왜 방향을 잃게 된 것입니까? 그 원인을 한마디로 하면 그들의 적용(適用)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1) 율법(律法)을 자랑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율법이란 영어로 Law 이니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은 매우 포괄적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이란 시내 산에서 주신 10계명을 바탕으로 모두 613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성서학자 중의 한 사람인 유대 랍비 주석가 카수토(Cassuto)는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열 손가락으로 열 가지 계명(십계명)을 꼽으면서 언제나 기억하고 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613개의 계명 중에서 **248개 조항**은, '긍정적인 계명'(~을 하라)이고, 나머지 **365개 조항**은 '금지적인 계명'(~을 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긍정적인 계명'의 수(248계명)는, **사람의 뼈마디 수**와 일치하며, 금지하는 계명의 수(365 계명)는, **일 년의 날수**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숫자의 일치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해 오고 있습니다.

<248개의 뼈마디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은 일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자랑하면서도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랑하는 만큼, 먼저 그것을 실천(實踐)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가르치는 자는, 먼저, 자신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이, 행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잘하려고만 하고, 설교대로는 살지 않고,

듣는 자는, 좋은 설교 감동적인 설교, 더 감동적이고 자극적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려 하지만 듣기만 할 뿐, 행함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종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신앙도 현실에서 자리잡고 공중에 붕 떠있는 <이념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 만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내 삶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인터넷의 세계가 무궁무진하지만, 그것을 나의 컴퓨터나 전화에 연결하지 않으면 아무소용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연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접속하면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적용(適用)해야 합니다.

로마서 12:2절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장 못된 것 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000이 들어야 하는데...> 하면 안 됩니다. 설교 듣다가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최고로 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평신도가 아니라 설교자들입니다. 직업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나 선생들입니다. 자신들은 행(行)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올무와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악(最惡)입니다. 목사들은 항상 이 위험속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목사(牧師)도 인간인지라, 유혹도 받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론 그대로 살진 못해도 교육적으로 설교해야 할 때도 있고, 만일 자기가 행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는다면, 설교가 제한되고 설교가 매우 짧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성도들은, 행동이 있는 그런 짧은 설교를 더 좋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목사들은 설교하기 전엔 울고 회개하고, 속으로 울면서 설교하고, 설교한 후에도 자신을 돌아보며 삶을 재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의 은사 목사님 중 한 분은, <목사는 매양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판단아래 있으니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한 말에 의해 판단할 이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가지고 함부로 경건한 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뒤에 감추고 가면을 쓰고, 철면피(鐵面皮)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진후에라도 그것을 변명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어찌해야할까요? 목사들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현미경으로 감독해야 할까요? 그럴 순 있겠으나, 그러면 자신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마태 23:2-3)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저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미워써 하나님의 말씀까지 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는 설교한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고통(苦痛)이 있습니다. 직분(職分)은 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말씀증거의 사역은 부끄럽고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은 늘 자신이 이 말씀에서 어떠한가를 생각하며 겸손하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실천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가르침의 목적(目的)도 실천이요, 배움의 목적(目的)도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에서 “가서 제자 삼아 침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고 하셨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마태28:20. NIV) 즉, 순종하게 할 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가르침도 헛것이고 배움도 헛것입니다.

3.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방향을 수정하는 길은 무엇인가요?

1) 말씀생활에서 실천적 요소에 focus를 맞추시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3:14)”합니다.

이어서,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3:15-17)”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앞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우리에게 약한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그것은 배움의 한 부분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내니까 문제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일에서 끝내버리니까 착각(錯覺)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실천의 부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야고보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As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so faith without deeds is dead.:약2:26)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2) 표면(表面)보다 이면(裏面)을 중요시 합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주신 말씀 중 “그들이 하는 행실은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마태23:5) 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표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심입니다.

보통, 빙산(氷山)의 경우, 밖으로 보이는 부분은 1/3이고, 안 보이는 부분은 2/3라고 합니다. 그것을 빙산의 일각(一角)이라고 합니다. 표면보다 내면(內面),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형식, 겉모양을 중요시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걸 사람을 따졌습니다. 그들이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는 사람이냐 무할례자냐 하는 것을 따졌습니다. 할례에 구원(救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할례도 하려면 몸에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롬2:28-29상)”

할례의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서약(誓約)인데, 아무리 몸에만 서약하고, 그 서약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일지라도, 날마다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실제로는 마음에 할례를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中心)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Man looks at the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s at the heart.”(사무엘상16:7)

지금, 바울은 동족 유대인을 꾸짖는 것입니다. 불호령 같은 꾸중입니다. 그가 만일 현대에 다시 살아난다면 똑같은 말로 기독교인들을 꾸짖을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바울의 말씀에서, ‘유대인’을 <기독교인>으로 고치고, ‘율법’을 <복음>으로 고치고, ‘이방인’을 <불신자>로 고쳐 읽고, ‘할례’를 <세례(침례)>로 고쳐 읽으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로마서 상권 163)

사람들은 그의 학식이나 재력이나 과거의 경력들을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자부심, 복음을 자랑하고, 신자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회에 입문, 학습 세례 직분을 받을 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참석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1시간 또는 1시간 30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참 예배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보셨고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12:1절에서 바울사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했습니다.

한 주간 안에도,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망스러운 상황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나의 내면(內面)이자 이면(裏面)이고 참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상황이 악하고 악함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내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평안을 회복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참 신자란, 외적으로 어떤 상황가운데에서도 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신자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마태7:21) 내 방식대로 판단하며 사는 자가 아니고, 마음 깊이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맺음 : 비행사들이 비행착각(飛行錯覺)을 일으키면 계기(計器)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시계가 닫힐 때 조종사는 조종간을 놓고 계기비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사랑과 성경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말씀을 교리화해서 이단을 분별하는 것에 모든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그말씀을 생활화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달 전, 로마서 7번째 말씀에서 세 가지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양심법’과 ‘율법’과 ‘신법’입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아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착각(錯覺)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법들 중, 1번 ‘양심법’, 2번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현행법(現行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의 법인 제3법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1,2법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 3가지 법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 마음과 행위가운데서 오락가락하며, 모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양심과 율법을 초월했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법은 여전히 현행하는 법입니다.

어떤 죄는 우리의 양심(良心)을 건드리고, 우리의 영(靈)은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시켜 줍니다. 결국은, 우리가 제 삼의 법인 <믿음의 법>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지만, 율법이나 양심법이 폐기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working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공의(公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다른 인간들을, 양심법이나 율법으로 판단하신다면,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신법(信法)으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은 구원 받은 자들이, 양심법과 율법에도 어긋나지 않는 존재들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다는 것은, 자명(自明)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행위와 단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한 비전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8-1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들을 정리하자면,

1.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2.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하지 못한다.
3. 구원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4.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완성이다. 전부터 예정된 길이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에 머물러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선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인트쥬지 한인교회 성도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분명한 시야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착시현상이나 허위감정을 가지지않고 바르게 내 자신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신앙적진리가 곧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이 그리스도안에서 선한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받아들여 날마다의 삶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